

[종합·해설]

우리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 방법

지역 국회의원들 양분 양상

“한대표가 서울시장 후보 전략공천”
민주 손봉숙의원 쓴소리

민주당 한화갑 대표와 신중식 공
특위위원장이 일본 정당과의 교류를
명분으로 나란히 손을 잡고 일본으로
떠난 가운데 서울시장 후보 전략공
천을 놓고 손봉숙 의원이 쓴소리를
뱉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민주당 현역의원
들이 한화갑 대표의 심기를 거스리
는 행동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이뤄
진 손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 안에서
신선한 반응을 얻고 있다.
손봉숙 의원은 1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그동안 공특위는
서울시장 후보를 경선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 전반기의 의결이었으나
한화갑 대표가 공특위를
한편 돌면서 전략공천을 부각
하자 결과는 10대 1의 전략공천 완
승으로 결정됐다”고 털어놓았다.
손 의원은 “한화갑 대표가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단일지도체제를
주장, 결국 관철시켰던 것 같다”며
“서울시장 후보 선출 방식에는 동
의할 수 없지만 민주당에 등을 돌
릴 수는 없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모두 힘을 내자”고 밝혔다.
이와는 반대로 공특위원장이인 신
중식 의원이 한 대표와 일본을 방
문한 것에 대해 민주당 내외에서
보는 눈길이 굵지 않다. 공특위 후
보 확정 발표 이후 예상되는 예비
후보들의 반발을 피해보고 위한 것
으로 비쳐진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특위원장이인
신중식 의원이 일본 정당과의 의결
외교를 명목으로 한화갑 대표와 함
께 당을 비운 것은 손봉숙 의원의
솔직한 발언과 극명하게 대비된
다”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동채의원 등 5명 ‘100% 여론조사안’ 제출
염동연·강기정의원 “당원 참여 경선 해야”

열린우리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 방
식을 놓고 반목을 보여 왔던 열린우리
당 소속 광주시 지역 국회의원들이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각기 조영택, 김
재균 예비후보 진영으로 갈라섰다. 경
선방식 논란이 여당 의원들을 갈라 놓
은 것이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양형일, 정동채,
김태홍, 지병문 의원 등 5명은 광주시장
후보 경선이 100% 시민여론조사 방식
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논조를 서명하
는 소견서를 지난 17일 오후 중앙당 공
직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소견서에서 “당원 접촉 기
회

가 전혀 없었던 조영택 예비 후보에게
당원 경선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 자체
가 불공정 경선”이라며 100% 시민여
론조사 경선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
“김재균 예비 후보는 TV 토론을 일방
적으로 거부하고 당초 후보의 내용을
뒤집는 등 열린우리당 후보로서의 자
질을 의심케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김재균, 조영택 후보가
100% 시민여론조사 경선 방식을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광주시 후보는 전
국공천을 통해 선출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당원 참여 경선을 주장하

고 있는 염동연, 강기정 의원은 서명예
외로 김재균 예비후보측에
있다.
염동연 의원은 “염 의원이 특정 후
보를 지지하기 보다는 원칙적인 입
장에서 경선에 당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당원 경
선을 한다고 해도 조영택 예비 후보에
전혀 불리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중앙당이 과연 누구의 손
을 들어 줄 것인가에 지역 정치권의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 상황으로는 광
주시 지역 국회의원의 다수인 5명이 소견
서까지 제출했다는 점에서 결국 중앙당
이 시민여론조사 경선을 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염동연 사무총장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광주시장 후보 경선은 당원 참여로 결
정될 것이라는 추론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5·31 지방선거 현황

조영택예비후보, 비방행위 중단 촉구

○조영택 열린우리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8일 성명
을 내고 김재균 후보 측에 “비방에 가까운 성명을 발표하는
등 해당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 후보는 “후보가 결정되면 힘을 합해야 할 당내 예비후
보를 비방하는것은 자멸을 초래할 뿐”이라며 “시민들이 열
린우리당 광주시장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TV토론 등에 적극 응하고 중앙당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당
원의 자세”라고 주장했다.

이상갑 광산구청장후보 출마 회견

○열린우리당 이상갑 광산구청장 후보는 17일 오후 광
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지방권력 교체’를 내세우며 출마 기
사회견을 가졌다. 이 후보는 “특정 정치세력이 지방권력을
독점, 지방의 호세력들과 유착해 온갖 비리를 양산하고
있다”며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잠산하고 도덕적인
인물이 지방정치의 새로운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
다.

興 북구 광역·기초의원 후보 선출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은 17일 오후 광주 그랑시야웨
딩홀에서 북구 제4선거구와 5선거구 광역의원 후보 경선을
실시, 4선거구에서는 진기수 무등어린이집 원장, 5선거구
에서는 이형각 전 연태노련 광주·전남지부장을 후보로 각각
선출했다.

또 북구 마산선거구 기초의원 후보로는 조석호 북구의원,
배일진 시장 시민생활체육 특별위원장, 김병도 북구를 청년
위원장, 이은방 광주경찰청 집행위원 등이 1~4순위로 선출
됐다.

신현구에비후보 홍보물에 핑크색 사용

○신현구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18일 후보의 이미
지 상징색을 ‘핑크’로 정하고 각종 홍보물에 사용키로 했
다.

신 후보는 “아름고 추운 겨울이 가고 봄빛깔 만발할 봄이
왔듯이 서구도 과거의 정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이뤄
지역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열매를 맺기 바라는
마음에서 핑크색을 골랐다”고 설명했다.

마광민 기초의원후보 사무소 개소

○민주당 소속 마광민 광주 북구 나선선거구(풍향·두암
1~3·문화·석곡동) 기초의원 예비후보는 두암동 신광여중
사거리(510-1504)에 선거사무소를 마련하고 19일 오후 2
시 개소식을 갖는다.

마 후보는 이날 개소식에서 “주민에 봉사하는 자세로 자
치행정을 감시하고 항상 낮은 자세로 임하는 구의원이 되겠
다”는 내용의 출사표를 발표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수도권 유권자 정당보고 투표”

열린우리당이 5·31 지방선거를
대비해 구성한 ‘수도권 드림팀’이 지
지율 정체에 발목을 잡힌 모습이다.
한때 모든 여론조사에서 서울시
장 예비후보 가운데 부동의 1위를
달렸던 강금식 전 법무부장관은 한
나라당 오세훈 전 의원이 선거전에
뛰어난 뒤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

경기도지사 후보인 진대제 전 정
통부장관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진 전 장관은 한나라당의 공천비리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13일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에서 30.
8%를 기록했지만, 18일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21%로 하락했다.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가들

우리당 康·陳 지지율 갈수록 하락
강 전 장관 인물대결 어려워 고진

고 있다. 강 전 장관은 오 전 의
원이 출마를 선언한 이후 지지율 2
위로 주저앉았고, 최근에는 선두인
오 전 의원의 격차가 더욱 벌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일 갤럽이 발표한 여론조
사에서 46.5%의 지지율을 기록했
던 강 전 장관은 지난 13일 미디어
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 39.9%, 18
일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31%로
하락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은 인물들 비교해 투표하
기보다는 지지당에 따
라 투표하는 성향이 높은
수도권 유권자의 특성을
들고 있다.
한규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연
구실장은 “서울의 경우 유권자들이
특정지역의 개발과 같은 보상적 가
치에 따라 지지 후보를 바꾸는 경
향이 낮고, 정당에 따라 지지후보
를 결정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강 전 장관의 지지율이 낮은 것도
서울의 경우 순수한 의미의 인물대
결이 이뤄진다는 특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천비리와 관련,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대통령 “공천비리 철저히 단속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지방선거를
앞둔 정당의 공천비리와 관련, “선거부
정은 여러가지 부정부패의 원인이며
그중에서도 공천비리야말로 구조적으
로 부정을 파생시키는 근원적 비리”라
며 “공천비리를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
해 이같이 지시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현재 상황에서 공천비리에 대한 검
경의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

고 신고에만 의존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고 김
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 시점에서 공천
비리 등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적절하
게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공천
비리에 대한 엄격한 정부 대처를 당부
했다.
/연합뉴스

Grid of 24 boxes, each containing candidate information for the 2006 local elections. Each box includes: 1. Candidate Name and Party (e.g., '이영호 (자유당)', '신영인 (자유당)'). 2. Constituency (e.g., '광주광역시 남구'). 3. Contact Information (phone number, address). 4. Campaign Office Information (address, phone number). 5. Campaign Dates (e.g., '2006. 04. 17. 10:00'). 6. Rules for Campaigning (e.g., '2. 파선신고-파선제지령 주문'). 7. Rules for Campaigning (e.g., '3. 이유의 요지'). 8. Rules for Campaigning (e.g., '4. 면책신청기일').